

# 멕시코전 '특급병기'... 오현규 자신만만



“멕시코 홈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지, 얼마나 많은 야유가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즐겨야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등번호 없는 '27번째 태극전사'였던 오현규(베식타시)가 4년 만에 홍명보호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성장해 멕시코 홈팬들의 야유까지 즐기겠다는 자신감을 내뿜었다.

오현규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유타주 헤리먼의 자이언스뱅크 트레이닝센터에서 치러진 홍명보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전캠프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4년 전에는 제가 뛰면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다. 지금은 자신감이 있다”면서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성장했다고 말해준다. 가진 100% 그 이상을 큰 무대에서 발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카타르 대회 때 오현규는 등번호 없는 '27번째 태극전사'로 과울루 벤투 당시 대표팀 감독의 손에 이끌려 월드컵 현장을 '간접 경험'했다.

선배들이 원정 16강 성적을 내는 과정을 곁에서 생생히 지켜본 그는, 이번엔 홍명보호의 주전급 스트라이커로 당당히 26인의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현규는 “4년을 기다려서 꿈꿔왔던 대



작년 평가전서 1골 1도움 '펼 펼'  
“월드컵 두 번째 상대 꼭 잡겠다”  
지난 대회 맨 훈련 파트너 신세  
이번엔 당당한 주전 사기충천  
“멕시코 홈팬 야유 즐길 것” 여유

27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유타주 헤리먼에 위치한 자이언스뱅크 트레이닝센터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오현규 등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게 이렇게 보답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캠프에는 훈련 파트너로 조위제, 강상윤(이상 전북), 윤기욱(서울) 등 유망주 3명이 함께하고 있다. 오현규가 4년 전 있었던 자리다. 특히 윤기욱은 4년 전 오현규처럼 월드컵 본선에서도 대표팀과 꼭 함께한다.

오현규는 “(조위제 등을 보면) 훈련 파트너로 왔던 기억이 많이 난다”며 “그때 세계적인 형들과 훈련장에서 공을 같이 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쁜

데, 그 선수들도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전이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와 같은 포지션에서 카타르 대회 가나전 멀티골을 뽑아낸 조규성(미트윌란)이 경쟁한다. ‘월드클래스’ 손흥민(LAFC) 역시 최전방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홍명보호와 최근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놓고 보면, 오현규가 원톱 주전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

오현규는 “아직 내가 주축인지 중요한 선수인지 크게 잘 모르겠다”며 “항상 처음 소집됐을 때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

지 않으려 한다. 감독님이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든 100%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별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로는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을 꼽았다.

오현규에게 멕시코는 각별한 상대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치른 대표팀의 원정 평가전(2-2)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경기에서 오현규는 슈팅 4회, 경합 시도 7회로 팀 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오현규는 “최악의 상황, 최선의 상황,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즐겨야 한

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며 눈을 반짝였다. 거침없이 골을 노리겠다고 강조했다. 베식타시에서 넣은 바이시클릭 골이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올해의 골’ 후보로 올라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처럼 바로 슈팅을 날릴 것인지, 아니면 발밑에 잡아놓고 안정적으로 슈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오현규는 “볼 뜨면 바로 갑니다!”라고 힘줘 답했다.

‘전설’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이 오현규를 한국의 대표 첫 골 후보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엄청난 과찬”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현규는 “박지성 선배님께서 저를 언급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며 “기대해주시는 만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오현규는 4년 전 카타르에서 공책에 ‘18’이라는 등번호를 썼다고 한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그 18번을 등에 달고 뛰고 싶다고 했다.

황선홍, 조재진, 이동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들이 18번을 달았다.

오현규는 한국 축구에서 18번은 특별한 숫자라는 걸 알아내는 질문에 “네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씩 웃어 보였다.

글·사진·연습뉴스



크리스털 팰리스가 창단 121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정상에 올랐다. AFP-연습뉴스

## 크리스털 팰리스, UECL 우승 121년 만 첫 유럽 정상 등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크리스털 팰리스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클럽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28일 오전(한국 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스페인)와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UECL) 결승전에서 후반 6분 터진 장필리프 마테타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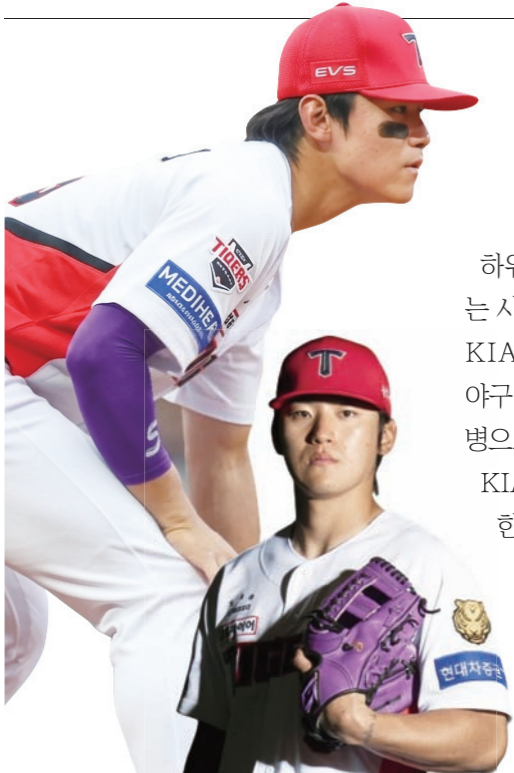
애덤 워튼이 상대 페널티아크 왼쪽까지 특공 공을 쏜 뒤 원발 중거리 슈트를 시도했고, 골키퍼가 쳐냈으나 골문 앞에 있던 마테타가 곧바로 원발로 차 넣어 승부를 갈랐다.

이로써 크리스털 팰리스는 1905년에 창단한 이후 처음으로 유럽대항전 정상에서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았다.

크리스털 팰리스와 라요 바예카노 모두 유럽대항전 결승 진출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크리스털 팰리스 지휘봉을 내려놓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또 한번 새 역사를 쓰고 물러나게 됐다.

약 2년 반 동안 크리스털 팰리스를 이끈 글라스너 감독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첫 우승을 지휘한 데 이어 커뮤니티 실드와 유럽대항전 트로피까지 처음으로 안기고 팀을 떠난다.

올 시즌 마지막으로 남은 유럽클럽대항전의 우승팀은 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리는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아스널(잉글랜드) 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가려진다.



## “나를 따르라”... ‘대포 군단’ KIA 선봉장 김도영

하위권을 맴돌 것이라 시즌 전 예상을 깨고 KIA 타이거즈가 프로 야구 3강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홈런이 있다.

KIA는 27일 현재 팀 홈런 63개를 쳐 2위 한화 이글스(54개)를 9개 차로 따돌리고 이 부문 1위를 질주한다.

중간 순위 선두 삼성 라이온즈(40개), 2위 LG 트윈스(32개), 3위 kt wiz(36개)는 4위 KIA에 홈런에서 그만큼은 명함을 못 내민다.

KIA는 2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솔로포 4관으로 4점을 뽑은 뒤 키움 불펜을 두들겨 9-2 낙승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경기 수(50경기)를 치렀을

때 42개였던 홈런 수는 올해 정확히 50% 급증했다.

작년에 세 차례나 허벅지 뒤 근육통으로 신음했던 김도영이 건강을 되찾아 대포를 뽑아내면서 팀 전반의 장타 생산이 월등히 높아졌다.

홈런 1위 김도영(14개)을 필두로 공동 9위 김태환(10개), 김민우(9개), 김민우(9개), 김민우(9개) 6명이 KIA의 홈런 경쟁을 이끈다. 확실한 주포가 홈런 생산에 앞장서고,

뒤를 따르는 무리가 경쟁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주전 타자들이 골고루 홈런을 치는 팀은 KIA와 한화 정도다. 강백호(요나단 페라자)이상 10개) 쌍포와 하인성(9개), 문현빈(8개), 노시환(7개)이 한화의 홈런 레이스를 주도한다.

2015년 데뷔해 작년까지 통산 홈런 26개를 친 34세 베테랑 김태환이 경이적인 장타력을 자랑하며 KIA 타선에 큰 힘을 보탤다. 프로 2년 차 박재현의 타격 솜씨는 이미 올해 타이거즈의 최대 히트상품이 됐다.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델리온은 고작 18경기만 뛰고도 8방의 대포를 발사해 무차별로 터지는 KIA의 파괴력을 더했다.

KIA는 홈에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32개를, 원정에서는 한화(3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개 홈런을 쳤다.

경기 1~3회에 15개, 4~6회에 23개, 7~9회에 23개를 날렸고 연장전에서도 2개를 보태 뒤로 갈수록 매섭게 방망이를 돌렸다.

특점전에서 터진 홈런도 15개로 한화(16개)에 이어 SSG 랜더스와 더불어 공동 2위다.

시즌 27승 1무 22패를 기록 중인 KIA는 승리한 날 홈런 46방을 몰아쳐 홈런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임을 입증했다.

4월에 26개, 이달에 34개를 몰아친 KIA가 순위 싸움이 더욱 뜨거워지는 6월에도 계속 홈런 상황 곡선을 그릴지 주목된다.

김도영 (KIA 타이거즈-내야수-No.5)			
전체 순위			
타율	홈런	안타	타점
0.275	14	50	42



# Inhancer Plus™

##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